

주부신행담

되찾은 올바른 삶 ①

9년 전 그때는 한여름의 날씨를 채 벗어내지도 못한 9월초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마음도 몸도 춥기만 했던지... 이곳저곳 마음이 내키는 대로 중심을 잃고 헤매다가 아무런 생각도 대책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

비교적 모든 것에 적응이 빠른 나에겐 이 도시의 낯설지도 않았고 그저 시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세월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흘러 버리는구나 하는 무표정 그대로였다. 마음 속 깊은 곳의 알 수 없는 무거움은 어떤 여유로움도 가질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생각없이 빈둥거리다 찾은 곳이 수국사였다. 나는 평소엔 독서를 즐기는 편이다. 수국사를 찾은 이유도 자용스님의 책을 누가 구입해 주어서 그것을 읽어보고 나서였다. 책은 여러 불자들의 경험담들을 모아 엮은 것이었는데 나도 혹시나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절에 갔다.

그즈음 나는 굉장하 힘들 때였다. 건강했다는 기억은 없을만큼 항상 찌푸린듯 몸과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떤 꿈을 꾸고 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했고, 매일 밤마다 똑같은 꿈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것은 하루 이틀이지 오래 지속되다보니 모든 것이 귀찮고 차라리 산다는 게 힘들 지경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다가 인연이 닿은 곳이 수국사였다. 그곳에서 주지스님을 찾아 읽고 이만저만해서 이러한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서 살다시피 했고 사춘기시절에는 절에서 생활도 해보았다. 명이 팔으므로 절밥을 먹어야 된다고? 이유가 어찌되었든 난 절과 인연이 많았다. 지금은 기억이 희미하지만 스님과 같이 길을 떠나 말말의 어느 신도 덕에서 하루 쉬고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나 홍제사에 들러 주지스님을 뵈고 다시 도착한 그곳은 산 중턱에 있는 조그만 암

자였다. 비로서 시작된 절에서의 생활. 그때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으므로 걷다가 땀도 뻘뻘 났다. 더위 때문이라기 보다는 모기의 극성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곳 주지스님은 세상이 당시 여든 하나라고 하셨는데 무척 자상하셨다. 산에서의 생활이 견디기 힘들거라면서 가끔 용돈을 주시면서 읍내에 나가 구경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으라고 하셨다. 그러면서도 공부에는 너무 마음을 쏟고 있지 말라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난다.

그전에는 절에 가면 절만 하고 놀다가 오는 것이 전부였으므로 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는 중에 허탈한 생각에 누구에게라고 할 것도 없이 혼자말로 이런 때에 복권이라도 하나 당첨됐으면 좋으려만 하는 간절함이 들었다. 큰 것도 필요없었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에 오십만원짜리 즉석복권이나 맞았으면 했다. 욕심이라는 것도 알았다. 기도의 목적도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건강하고 싶었고 매일밤의 반복되는 꿈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생각지도 않았던, 낮의 그 서원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오십만원짜리 즉석복권에 당첨됐다. 이런 일도 있긴 있



그림 · 이준석

할일 하고 먹을 것 다 먹으면서도 몸이 아파 힘들고 고통스러워 어리석은 마음에 무당을 찾았다

물었다. 그래서인지 그때는 무조건 외우려고만 했던 것 같다. 나이도 어렸던 사춘기 소녀가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 해석본 책을 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암기를 위한 암기였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외워둔 것이 십 년이 지난 지금 걸작을 보지 않고도 독송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곳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끼기 마련인가.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나만은 모두 믿었어야 했는데 스님께 죄만 짓고 꿀을 뒤쳐 나왔다. 뚜렷하지 못했던 내 주권에 화가 나고 스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웠으나 다시 찾아 볼 용기도 시간도 없

구나 싶었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다. 급한대로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는 시주를 했다. 그렇게 해야만 출가분 하였고 때문이다.

인간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욕심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를 얻고 나면 그 감사함도 잠깐이고 또다른 갈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왜일까?

다른사람들 눈에 내 모습은 조금 마르고 얼굴이 수척해 보일 뿐 어느 사람들과 똑같이 보였을 것이다. 정작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차라리 음식을 못 먹어서 기진맥진해 있던지 아니면 아파서 움직일 기력조차 없어서 누워 있더라도 한다면 동정이라도 받을 텐데, 해

아할 일 다하며 먹을 것 다 먹으면서 아프다는데 누가 믿겠는가. 괴병 정도라면 생각하는 주위 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했었다.

내가 내 병에 집착한 나머지 어리석은 마음에 점집을 찾기 시작했다. 거기에서는 곳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내겐 엄청난 액수의 금액도 문제였지만 곳이라는 자체가 내겐 너무나 생소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네들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우연한 기회에 눈에 들어온 (무녀별곡)이란 책을 읽어 보았다.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속에는 그네들의 삶의 뒤안면 숨겨진 고통, 아픔, 사랑 등 애환이 담겨 있었다. 당시의 상황.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의 그들의 생활이 물론 전적으로 옳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난 어느샌가 연민의 정을 느끼기에 이르렀고 그때까지 부정하려 했던 마음이 조

금씩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었다. 그러기엔 너무 지치기도 했고 조금은 두렵기도 했으니까, 결국은 곳을 하기로 했다. 다른 건 어떻게 되든 일단 어떤 것이 사라진다는 거 그것이면 족했다.

그리고 시작된 나의 또다른 삶. 그건 벗어남이 아닌 또 다른 고달픔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왜 작용이 잘 안되었을까?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소신있게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함은 그들만의 행복이려나. 성격도 가지가지이다. 어느 때는 자상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내가 보았고 느꼈고 체험했기에 그런 모습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웃고 씩씩해 보이지만, 정말 근심 걱정 없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서 눈물 흘리는 그 아픔을 내가 왜 모르겠는가.

그런 반면에 또한 욕심도 상당하다. 어느 누구를 만나봐도 오직 자신만이 최고이다.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던 것인가. 정말 욕심이 말할 수 없이 많고 말도 많았다. (계속)

백련화 (인천시 부평구 심정2동)

독한 향으로 인한 고통 천연향으로 싹 해결하십시오

일제향만 꼭 피우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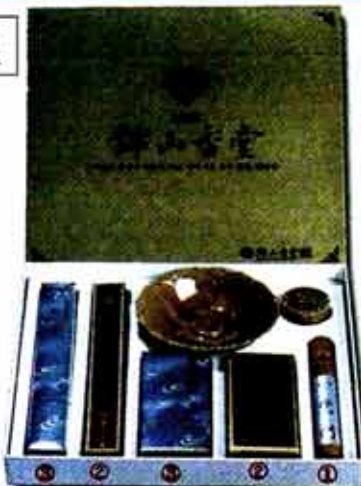
① 일각문

마음을 여는 문을 가르키는 이름으로 마음의 여백을 향기로 열어주는 심연의 향기로서 궁중이나 사원에서 널리 애용되어 온 순수 전통 천연향으로 특히 집향, 울릉도 자단향, 영농향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 향기가 매우 고귀하고 맑아 마음과 정신 육신을 능히 맑게하고 밝아오는 하늘까지 통하고 안으로는 인간의 마음 오장육부까지 그 향기가 전해지는 향

② 신금난

백단향 배리향과 금산향만의 특이한 3대째 내려오는 장인정신이 깃든 배합과 숙성기술로 탄생된 명향으로 일본에서 한중일 무역박람회에서 우리의 천연향기로 세계인을 놀라게 한 일명 피우는 우리의 향수! 피울때는 정신을 맑게하고 그 잔향은 몸에 배어 은은하게 풀려 나와 타인의 기분까지 좋게 하는 우리 선조의 이웃사랑정신을 알게 하는 향

최고급 선물세트



일본수출기념
향꽃이
무료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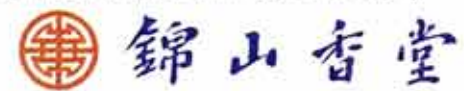
특별보급가격
42,000원

한국의 선향의 자존심 최우는 우리의 향수

귀하신분께 귀하신 선물을...

③ 백난

옛부터 소양의 기루향으로 많이 쓰이는 향재를 사용한 것으로 묵향, 육계, 정향, 난향등을 잘 조화를 이룬 제향기술로 사향의 경위를 느끼게 하며 그 향기가 미묘하고 아름다워 자연과 하나가 됨을 느끼게 하는 향



천연정맥을 고집하며 3대를 이어온 100년 전통의 금산향당

◆보급처: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68-1번지

◆일터: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여리 498-2번지

◆http://www.ksbuy.co.kr

◆TEL: 051)518-3017-8

◆FAX: 051)518-3019

◆무로전화: 080-776-7000

『우리 곁에 다녀간 부처』 성철 대선사 기념메달 보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 뜻만 깨쳐도 우리는 이미
큰스님과 함께 삼법인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 황동(순금도금) ■직경: 80mm ■가격: 5만원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후면

■판매: 인허넷 불교 백화점 마아몰 ■제조: 한국조폐공사

◆전화: 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 보급

『달마대사와 경전의 핵심인 반야심경을 함께 모셨습니다.』

가정에는 품위있는 소장용* 고마운 분께는 마음의 선물용*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을 선택하십시오.

『달마조사는 우리에게 불립문자로 반야심경을 설파하였습니다. 흔히 달마조사의 그림 자체가 기(氣)가 많이 살아 있으며, 수묵차단 윤기보호 등등을 운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 반야심경과 함께 있는 달마조사는 우리에게 선(禪)을 통한 자기 성찰의 기(氣)를 주고 있습니다.』

재질 및 특징

예측시, 우레탄등 5종류의 특수재질을 혼합 나뭇결 모양을 100% 살린 목재경판 형태로 만들어져 수십년이 지나도 뒤틀리거나 깨지지 않고 가정에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경판 표면의 그림과 문자를 특수 동분처리하여 소장 가치를 높였다.



▶ 스탠드형 경판 (고급 오토너우 케이스 포함)
· 원산지: 한국
· 규격: 가로 49cm 세로 23cm,
두께 2.8cm 무게 1.8kg
· 가격: 97,000원

▶ 액자형 경판
· 원산지: 한국
· 규격: 가로 69cm 세로 43cm,
두께 3cm 무게 45kg(액자포함 사양)
· 가격: 107,000원

◆전화: 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